第295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12月21日(火)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審査된案件

1. 현안보고(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경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군은 어제 20일 오후 연평도에서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중단되었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긴장 완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언론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4월 6자회담 중단 발표와 함께 추방했던 IAEA 핵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를 허용키로 하고,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한반도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한편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로부터 연평도 사격훈련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상황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보고받고 정부 대책을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마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을 위해 11시쯤 이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차관들이 대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후에 2시나 2시 반쯤에 다시, 끝난 이후에 장관 두 분이 복귀해서 답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0시12분)

○위원장 남경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어

제 있었던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한 개요와 주요국과의 협의 그리고 안보리 논의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군은 지난 12월 16일 날 연평도에서 12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12월 17일 전통문을 통해서 연평도 훈련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이를 강행 시에는 2차, 3차의 타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군은 2시 반부터 오후 4시 4분까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명의의 보도 발표를 통해서 '북한군은 비열한 군사 도발에 일일이 대응치 않을 것이며 한미의 본거지에 대한 2, 3차 대응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입장을 천명하는 선에서 보도를 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에 우리 사격훈련 계획의 성격 및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이 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방어적인 훈련이며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대북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꾸준히 공조를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12월 18일 날 중국을 막 방문하고 돌아온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시간 통화를 해서 협의를 했고 또 한반도교섭본부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성김 특사와 금요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주한미대사와 협의를 하는 등 미측과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사격훈련으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온 데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북경과 모스크바 그리고 서울에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 훈련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안보리 조치에서 같이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주한 대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격훈련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안보리 토의 시 우리 입장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안보리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 12월 19일 일요일 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안보리 긴급회의가 비공개리에 개최됐습니다. 러시아는 회의를 소집함과 동시에 또 안보리 의장 대언론 성명에 대한 초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한 양측의 자제와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사무총장 특사를 남북한에 파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등 우방국 또 다수 이사국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그러한 장으로 이 기회를 활용했고, 최종적으로 성명의 내용은 이사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무산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있었던 북한의 포격 사건을 규탄하는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에 이어서 안보리 요청으로 남북한 대표가 참석하여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우리 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과 해상사격훈련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북한 대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과 어젯밤에도 계속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우리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방위태세를 강화해서 북한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우방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북한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는 어제 우리나라 군의 사격이 있은 후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최근 사태 발전 상황에 주목을 하고 또 각 측의 최대한 자제 유지를 통해서 사태 악화 방지를 호소한다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낸 바가 있고, 러시아는 라브로프 외교부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안보리 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평도 사격훈련 관련해서 통일부 조치사항과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변안전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북을 제한하였습니다. 원부자재 및 식료품 등 물자수송은 11월 29일 날 허용을 하였고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를 위한 교대인원 출경을 12월 6일 날 허용하는 등 입주기업들의 애로도 고려를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연평도 사격훈련에 따라서 어제 12월 20일 하루 동안 방북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사격 이전 수준으로 방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은 지속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비상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해서 개성공단·금강산 지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관련해서는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8시 현재 체류인원은 개성공단은 209명, 금강산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북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의 책임을 북한은 한미에 전가하면서 대남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NLL을 불인정하고 북의 자위조치라는 그런 정당화 하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빌미로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훈련에 대해 추가 도발을 위협했습니다.

12월 17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타격강도와 포괄범위에서 11월 23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 12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2차 연평도 사건은 미국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훈련 중지를 압박을 하였습니다.

12월 20일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2차·3차의 대응타격은 한·미의 본거지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위협을 한 바 있습니다.

둘째, 경수로 건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추진 등 핵 억지력 지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경수로 건설 추진 및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월 10일 박의춘 외무상은 '미국과 남한의 적대적 행동에 맞서 핵 억지력에 기초한 방어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면하여 국민 신변 안전 보호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 방북 제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문제와 현지 입주기업 애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12월 21일부터 사격훈련 이전 수준으로 방북인원을 관리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한의 본질적 태도 변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24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두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예, 김동철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동철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서 회의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이렇게 외통위 회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두 분 장관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국회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11시 40분이라고 그랬지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합니까?

국회 이전에, 안전보장회의를 새벽에 하든지 어저께 밤에 하든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이런…… 행태가 이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11시까지는 저희들이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11시 이후에는 저희들 차관을 상대로 한 회의는 진행할 수 없고, 2시에 속개가 되면 그때부터 장관들을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유기준 간사님!

○유기준 위원 예,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하는 게 관례고 통례이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일의 순서로 볼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상임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일의 선후로 보면 사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먼저 잡혀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하고요.

또 우리 국회에 있어서 장관들이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자에게 보고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또 일면으로는 국가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장관이 출석해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출석이 하루 종일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 줘야 될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11시부터 계속 앉아 있으시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방향이 된다면 원하시는 위원들이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는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들께서 가셨다가 2시쯤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오찬회의를 잡은 것도 국회를 염두에 둔 그러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들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11시가 돼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개인 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의사 선택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순서표 대로 죽 진행하고요. 자리에 안 계시거나 질의를 하시기 어려운 위원님들은 오후에 장관들 복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최재성입니다.

지난번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외교적으로 천안함 외교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본 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특별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최재성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가 그동안…… 아마 안보리 회부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회부하는 문제를 저희가 그동안 안보리에 있는 우리 우방국들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협의를 죽 해 왔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안보리 회원국들의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논의를 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개 방향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러시아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연평도 사건에 대해 각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그

런 장으로 저희가 활용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한 나라가 반대를 해서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중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제가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어느 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위성락 본부장이 러시아 가서 모스크바에서 특파원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하고 회담 뒤에.

그 브리핑 내용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러시아가 연평도 포격을 비난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런데 러시아 입장이 왜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러시아가 회의를 소집했고 또 하는 와중에 성명서 채택 과정에서 러시아는 규탄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당초에 제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공개했던 문안보다 훨씬 강한 규탄 문안에 러시아는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재성 위원 거기서, 북한하고 연평도 포격을 지칭한 규탄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문안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재성 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냐 하면 국가적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건 저희가 문안을……

○최재성 위원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문안을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니,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한을 규탄하는 겁니까, 러시아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이 제시하는 안은 그랬고 러시아가 제시한 문안도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규탄이라는 것이 북한을 지칭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것이냐, 미국과 한국 입장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인데 러시아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웹 사이트에도 이미 북한의 포격을 비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러나 러시아가 나머지 한 나라를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제시한 문안과 약간 다른 내용을 제시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 그러나 채택되지 않은 문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러시아 웹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포격을 비판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중국도 언론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르고요. 또 중국 정부 당국 관계자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있고 교전이 있고 이런 중대한 사태에서 이해 당사자국, 주변의 이해 당사자국들의 반응은 매우 전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의 입장은, 기본 스탠스(stance)는 거의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국가의 전략적인 스탠스 때문에 그것을 우리 것으로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외교부가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매우 초보적이고 우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최재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가 아전인수 했다는 게 뭘 뜻하시는지 제가……

○최재성 위원 봐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쪽의 편을 들거나 이러기 어려운 정세에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동렬 선상에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자 그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오늘 장관께서 얘기하신 것은 하여튼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번 연평도 우리 훈련 과정에서,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은 이 훈련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회의나 이런 데 참여를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뭐…… 그 회의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재성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오.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 내용이 상세해지는 것이니까, 거기 내용이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참여해서 같이들 논의를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의견 개진을 하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하여튼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견 개진을 하셨냐 이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의견 개진이 뭘 말씀하시는지……

저희 당연히 회의하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최재성 위원 발언하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걸 발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것은……

○최재성 위원 아니, 회의를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하여튼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재성 위원 발언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최재성 위원 그리고 의견 개진도 하셨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7분에 1분씩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장관,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에 줄곧 NLL 북방한계선을 준수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동안은 말하자면 준수를 해 왔고……

○구상찬 위원 해 왔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73년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수역 항행 시에 사전 승인을 요구한 적 있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도 없고 기존의 NLL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왔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또 이 예를 들면 2002년 6월하고 2003년 11월에 표류·나포된 북한 선박을 북한이 NLL 선상에 와서 우리 쪽으로부터 인도받아 간 것도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그렇다 보면 NLL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또 1992년 말 합의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현 시점에서 NLL이 남북 간 유효한 해상경계라는 점을 합의한 바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렇지요?

또 NLL은 한국 전쟁 이후 획정된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한국 미국 북한이라는 당사자들에 의해

서 준용되어 오던 실질적인 기준이 맞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북한이 이런 NLL을 언제부터 실질적인 문제지역으로 선정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10·4 선언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NLL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해 왔습니다.

사실인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10·4선언에 말이지요 서해평화지대 구상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6월에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11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측에서 NLL 해상에서 나포됐던 자신들의 선박을 다 인수해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자, 그러면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이라는 것을 천명한 이후로부터 기존에 수용했던 NLL의 존재가 북한으로부터 부정당하는 양상을 보여 왔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 점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장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점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결국 북한 몽니 때문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해양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점도 좀 있다고 봅니다.

○구상찬 위원 자 이런 걸 보면, 제가 특정 정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상황적인 변화의 단초를 준 것이 이런 것들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NLL에 관해서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저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저희 영토와 또 영해인 것은 분명하고요. 저희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유지를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간헐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도발하고 또 때로는 그 이후에도 그것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그런 행태를 좀 반복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외교부 장관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 한반도 긴급회의 성명 채택이 무산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구상찬 위원 또 연평도 사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저는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대국민 정서에 맞다 또 흔들리지 않는 대북 대책,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직접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두 가지 트랙이 있고 또 서너 가지의 북한이 노리는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이런 긴장감을 조성한 것은 김정은 체제 안정화 및 홍보를 하기 위함이고, 둘째 협상 테이블에서 NLL을 비롯한 이런 국제적 문제점을 제기해서 미국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 또 더 큰 것은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일부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핵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핵 문제하고 직접 현 상태에서 연결해 보기는 조금, 아직 상황을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NLL을 무실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구상찬 위원 저는 장관 생각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방북 시에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바 있지요, 북한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에서 밝힌 내용이

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구상찬 위원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중국 측에서 발표한 문안을 정확히 보니까 '적극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언론은 그것을 '적극적인 지지 태도다' 이렇게 많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좋습니다.

또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갔을 때도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것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CNN에서 이미 방송 보도를 했는데요. 장관이 확인을 해 보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장관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북한은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이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 될 것이다' 또 18일 '우리민족끼리'의 논평에서 '엄청난 핵 참화가 덮어 씌워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핵 위협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것은 핵을 이용한 위기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있지요.

그래서 IAEA 핵 사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외부에, 세계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발이 북한의 핵을 세계에 알리고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함인데 장관 생각이 저랑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는 그 점은 저도 같고요. 다만 연평도 사건을 그렇게 같이 연계해 갖고 볼 수 있느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고 동의를 하고 같이합니다.

○구상찬 위원 저는 이번 도발이, 연평도 도발이 결국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서 북한에서 갖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외무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러시아에 대한 너무 성급한 우리 측 지원 발언이라든지 또 뒤늦게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것을 보면 사전 외교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급한 불만 끄러 다니는 소방차 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외교가 정말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지금 우리 중국 외교가 거의 구멍이 나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우리 외교위원들을 보내서 중국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사전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급한 불만 끄는 소방차 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중 외교 또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 큰 외교 과제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인 소통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선 통일부장관 답변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남북이 왕래를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되면 휴전선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휴전선은 있는 거지요. 금강산 관광이 되고 개성공단이 있더라도 휴전선은, 군사분계선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동철 위원 서해평화협력지대하고 NLL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NLL은 NLL이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한 것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쨌든 간에 그것은……

○김동철 위원 됐어요. 그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군사훈련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하는 그런 도박이 어떻게 그게 군사훈련이에요? 군사훈련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사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어제의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어제 연평도 사격훈련해 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해소됐어요? 북한이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이제 한국 무서우니까 사과합니까? 사과할 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했습니까?

오히려 이번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북한이 다시 재도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훈련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어적인 훈련이라 그랬는데 아니, 이지스함을 출동시키고 구축함 2척, F-15K 전투기까지 동원시킨 그런 통상적인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외교부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난번에 연평도에서 훈련이 있었을 때 우리의 정당한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스함대는.

○김동철 위원 제 이야기는 부대 단위로, 연평도에서 과거에 했던 대로 부대 단위로 훈련하는 것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주변 4강을 관리하지 않고서 한반도의 평화나 또는 통일 이러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훈련을 가리켜서 군사훈련만이 아니라 결국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뭡니까? 연평도 포격 당하고 나서 그 안보 무능을 덮기 위해서 분풀이하기 위한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대포폰을 통한 불법 민간인 사찰과 예산안 날치기를 덮기 위한,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것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놓고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좌지우지 당해야 되는 겁니까?

참모들이 정말 직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훈련하지 못하면 서해5도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북방한계선은 무력화된다'신문 보도에 그렇게 났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한 고위 관계자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철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 견해에 동의합니다.

○김동철 위원 동의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동철 위원 아니, 왜 어제 훈련 못하면 다음에 훈련 못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가 훈련을 할 때마다 도발이 있어서 도발을 막기 위해서 훈련을 못한다 하면 그다음에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오히려 힘이 세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건데 우리 인명 피해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지난번에 훈련하다가 남은 부분을 마저 완료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더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사실 우리하고 소통할 적에 상당 부분 많이 동의도 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어떤 면을 설득했다고 어떤 면을 설득 못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기네 웹 사이트에까지 올려서 북한을 비난했고요. 중국도 이런 남북 간의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영향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저희에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번에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물론 불발은 됐지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성명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 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동철 위원 아니, 연평도 도발을 북한이 그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그런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성명에 넣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외교가 성공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어느 한 나라가 본국의 훈령이 없다 그래서 안 한 건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별적으로는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안보리 성명에는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도 설득하지 못한 이 외교, 성공한 외교는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러시아는 규탄을 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동의했단 말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다만 아까 말씀대로 한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낸 문안과는 좀 다른 문안을 냈지만 내용상 같은 내용을, 그것보다는 조금 유연한 문안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중국과 러시아를 제쳐 두고 미국과 올인하는 이런 외교를 가지고는 명백한 북한의 그런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조차도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냉혹한 외교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부근에서 처음으로 연합 군사훈련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중국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났는데 저희가 어떤 성격의 훈련인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연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해 온 것은 있지만 동해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훈련인지 저희가 정확히, 과거에 구난훈련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결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반도 주변을 이렇게 강대국들의 훈련장으로 만드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이명박 정부가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훈련은 과거에도 죽 되어 왔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 왔는데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 연합훈련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만 봐 가지고 구난훈련을 얘기하는 건지 군사훈련인지가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창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 끝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李會昌 委員 외교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의 사격훈련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해서 사격훈련한 도중에 포격을 받고 중단했던 것을 재개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포격훈련 도중에 포격을 받고 다시 중단을 했던 것을 재개한다면 그 의미는 다시 이런 포격을 할 때는 그대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것은 바로 그러한 무모한 무력도발을 다시 못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러한 무력 도발에 대한 반격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李會昌 委員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번 이 작전에 대해서, 작전 수행은 100% 잘 됐어요. 장병들이나 또 협력한 연평도 주민들 아주 잘 행동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전 자체는 저는 반쪽짜리라고 봐요. 보도에 보면 개머리 상대방 진지가 15㎞ 떨어져 있는데 불과 3, 4㎞ 앞에 떨어지는 벌컨포를 150발이나 쐈다 그 말이야, 160발 중에.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는 K-9 자주포는 네 발만 쐈어요. 이 훈련의 목적이 연평도에 상륙기습하는 북한의 특전부대를 방어하는, 막기 위한 훈련이라면 그게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무력도발할 때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전은 수행은 잘됐지만 작전 자체는 50점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군사작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李會昌 委員 좋아요, 국방부장관 아니시니까.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쌍방 자제를 요구하는 그러한 의장 성명을 구했는데 결국 이사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무산됐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이견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견이 나왔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러시아는 당초에 한국이 강한 입장에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李會昌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길게 시간 저거 하니까.

러시아는 자제 요구로의 결의 의장 성명을 내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보다도 공격자인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러면 러시아 의견은 나중에 규탄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런데 중국이 반대해서 결국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李會昌 委員 그러면 러시아 의견은 자제 요구가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북한 규탄을 넣자 이런 것이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우리나라 외무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런 규탄을 첨가하는 안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명확히 일단 규탄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자제 요구 자체는 아주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사람들이, 러시아가 한 그 이유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會昌 委員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러시아의 자제 요구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외무부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한 행동보다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따지자 하는 그 얘기지요.

○李會昌 委員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소극적인 자위권 행사예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李會昌 委員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것은 맞은 피해자한테 참아라 하는 얘기다 그 말이야.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래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렇다면 가령 공격자인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첨가된다 하더라도 자제 요구가 들어간 그러한 성명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대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재발방지가 우선돼야 된다 하는 점만 주장했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런데 나는 이 보도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미·일이나 기타 여러 나라가 우리 입장을 동조하면서 북한 규탄 결의를 넣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안심을 하는데 만에 하나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안 하고 양자가 다 들어간, 즉 말하자면 자제와 규탄이 들어간 그런 성명이 채택되면 어쩌나 하고 나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그 부분은……

○李會昌 委員 아무리 '규탄'이 들어가도 '자제 요구'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훈련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측, 저희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분명히 했던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명은 채택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李會昌 委員 그 점은 정부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李會昌 委員 자제 요구는, 어떠한 내용이 첨가되더라도 자제 요구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해 줘야지 뺨 맞은 사람이 화풀이도 못하고 뺨 맞은 채로 자제하고 있어라 하는 것은 아무리 국제사회지만 그런 정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러시아나 중국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전망하기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러시아나 중국은……

○李會昌 委員 계속 그러한 자제, 기타 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한국 측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북 강경 행동을 견제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서 어떤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압박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會昌 委員 사실 러시아는 이번에 보니까 속된 말로 아주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제외교에서 능수능란하게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규탄한다고 해 놓고서 바로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서 '그러나 너는 참고 있어라. 자제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외교부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고 있겠지만 더더욱 자제 요구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장관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박선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관 두 분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지요?

○위원장 남경필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벌써 시간이 11시이고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외

통위가 회의를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식사들 하시고 장관 두 분 돌아오시면 그때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들께서는 사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경필 장관들은 이석하시고요.

○박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 회의를 2, 3시간 좀 쉬었다가 장관들이 도착하면 그때 회의를 계속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필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남경필 회의 초반에……

○원혜영 위원 장관님 가시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예, 하시지요.

○최재성 위원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미국의 안과는 다르나 북한과 연평도를 지칭한 그런 규탄안을, 누가 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안을 러시아에서 동의를 하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거 제출할 수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산됐기 때문에……

○최재성 위원 무산됐어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그 나라가 공개 안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출할 안이 아니고……

○원혜영 위원 제출된 자료인데 왜 못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무슨 말…… 그거 회람한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러시아가 회람 안 했습니다. 비공개로 회의했고 중간에 논의된 안에 대해서는 회람하지 않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지금 회람한 안이 공식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안을 냈는데 초안과 다른 수정안을 중간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끼리 문안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저희가 공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하여튼 지금 자료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공개를 해야지요.

○최재성 위원 아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무슨 얘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어떻게 3자가 남의 나라가 한 것에 대해서……

○최재성 위원 이게 3자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리에서 이런 성명서를 채택한다는 공식적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공개를……

○최재성 위원 그래서 처음에 양쪽……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안보리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으니까 장관 이석하시고, 다녀오셔서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최재성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오시기 전에 논의가 있어서 차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차관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박선영 위원 그러면 순서표대로 하되, 차관님한테 하실 분만 먼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경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경기도 포천·연천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계속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저녁 때 또 많은 분들하고, 그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이것을 제가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 또 포천시의 일부 지역은 접경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수시로 사격훈련, 군사훈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훈련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또 어찌보면 위축되기 쉬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지만 굉장히 침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착했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이 사격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었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격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서 그 사격훈련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오히려 후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 지역 주민들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상 시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군사훈련, 특히 사격훈련·포훈련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이, 우리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평도에서 어제 사격훈련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안보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오히려 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각수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우 위원 전적으로 동감하신다고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김영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권국가가 자국 내에서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훈련할 때마다 중국에 물어보고 하고 러시아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위원 우리는 늘상 그런 훈련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 그 사격훈련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차관께서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훈련은 37년간 저희가 해 왔던 정기훈련이고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서북 5도에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이고,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제가 보기에 북한이 서해 5도와 관련해서, NLL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을 분쟁지역화해서 NLL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유사시에 우리의 인천공항까지도 넘볼 수 있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사격훈련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토를 지킬 것인가, 영해를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좀 우려가 됐던 바는 러시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안보리에 회부해서 이것을 국제이슈화시키면서 자칫 서해 5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분쟁지역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떤 외교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말씀드린 대로 연평도 사격훈련은 저희의 주권적인 권리행사라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사안을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안보리에서 설명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러시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궁금해지더군요, 지난 주말에.

그리고 이제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까도 이런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동해 북부 해역에서 중국하고 동시에 군사훈련, 정확한 그 훈련의 내용과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 외교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외교적으로는 우리와는 동반자적 협력관계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김영우 위원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

리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물론 이번 사격훈련과 관련해서 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간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우 위원 예, 아무튼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은 저는 시간 벌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공세와 또 강공, 이런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북한의 움직임, 북한 특히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필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박선영 위원님이신데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박선영 위원 예.

○위원장 남경필 그러면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실무 최고 책임자인 차관들께 묻겠습니다.

외통부차관님!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유기준 위원 NLL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유기준 위원 원래 이제 북한이 정전 당시에, 6·25 사변으로 인한 정전 당시에 북한의 서해안에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있는 지역의……

그런데 이제 정전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섬들을 우리가 북한에게 양보하는 대신에 종전에 38선 이남에 있었던 그 섬들을 계속 우리가 확보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선박들이 못 올라가는 그런 NLL을 그은 것이 유래가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북한이 이제 황해도 일대, 38선 이남이라도 계속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 준 차원에서 NLL을 그은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NLL을……

○유기준 위원 아니, 유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NLL 자체는 1953년 8월에 UN군 사령관이 서해상에서 UN사 함정 및 항공기 활동의 북방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입니다, 일종의.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해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도 인정해 왔고 특히 1959년도 북한 지도에 보면 이것을 남북한 사이의 경계로 삼은 그런 지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NLL이라기보다는 SLL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우스 리미트 라인(South Limit Line), 그러니까 남방한계선이 되는 거지요. 북한이 이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을 북한이 계속해서 90년대 말 이후 또 최근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기본적으로……

○유기준 위원 분쟁지역화 하겠다는 건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연평도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해서 포격을 해서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NLL 이남의 영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포격훈련을 하는 것이 국제법상 어떤 문제가 됩니까? 되는 일이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국제법상 전혀 문

제가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국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정당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정당한 군사훈련입니다.

○유기준 위원 자, 그러면 만일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간섭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할 수가 없지요.

○유기준 위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간섭을 받고 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아닙니다.

○유기준 위원 이야기하셨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저희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관련국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자, 러시아와 중국이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연평 사격훈련에 대해서 러시아가 극도의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에 중국은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상당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태를 용인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그런 근심을 표시한 것이고 중국은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자위적 차원의 훈련까지도 반대를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그런 양자의 차이가 보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뭐 해석상 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에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대해서 포탄을 쏘고 그럴 때는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런 극도의 우려라는 표현도 쓰고, 이번에 UN 안보리에서 처음에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북한 편을 드는 쪽으로 가 버렸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갈팡질팡 외교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럭비공 외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칙이 없고 소신이 없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글쎄요, 러시아 정부의 외교행위에 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당사자니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아니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연평도 포격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유기준 위원 자, 러시아하고 중국도 이전에 흑룡강인가요,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섬을 가지고 서로 영토분쟁까지 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신의 영토에 대해서 그런 주권 침해행위가 있다든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간섭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을 용인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그러니까 용인을 하지를 않았고요. 저희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기준 위원 차제에 우리가 대중·대러의 외교를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대러외교는 지금 사실 우리 실용·실무외교에 치우쳐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쪽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리 주변의 4강국의 하나로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면 여기에 정무적 감각을 가진 또 상당한 외교적 역량이 있는 그런 외교를 할 때가 아닌가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유기준 위원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저희가 러시아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유기준 위원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드디어는 이런 러시아의 원칙 없는 외교, 제가 럭비공

외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럭비 할 때도 그 럭비공이 어느 곳에 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스포츠 시합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사안별로 해서 저희가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유기준 위원 지금의 러시아 외교라인이 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 거지요? 실용·실리외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무나 외교적 감각을 가진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보시고 만일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들면 특사 파견,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한 지, 말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그러니까 외교부로서도 지금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전에 소련일 때는 미국과 같이 2대 강대국으로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 군림을 했는데 CIS 국가들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강대국 중에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화로웠던 시대의 외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인 허탈감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주어진 과제이고 또 반면에 러시아에게 외교에 있어서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의 하나라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야로슬라블 포럼에 참석하신 것도 그러한 전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하여튼 외교는 외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 갈팡질팡한 러시아 외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순 위원 아니, 오후에 장관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예.

신낙균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신낙균 위원 예, 저도 장관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위원 차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남경필 위원장, 유기준 간사와 사회교대)

차관하고 질문할 때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순서 와도 안 한다는데……

○위원장대리 유기준 예, 충분히 사용하시고요.

○이윤성 위원 다른 분들은 순서가 와도 질의를 안 하겠다는데 차관하고 할 때는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위원장대리 유기준 다시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이니까……

말씀은 계속하시지요.

○이윤성 위원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생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안보 차원에서 볼 때는 군사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질의는 외교통상부가 따로 없고 통일부가 따로 없고 국방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군 작전이라든가 또 대북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은 통일부가 하겠지요.

미국의 공식 발표는 이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라면 당연한 조처다”, 들어 봤습니까? 이번 사격연습 재개가……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이윤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독 정치권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사격연습을 정치적 사격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긴장 조성이다, 모든 것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이명박 정권에 책임이 있다, 여기에 각 부는 동의하십니까?

먼저 외통부!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윤성 위원 그다음 통일부!

○통일부차관 엄종식 우리의 주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성 위원 동의 안 한다 이거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동의 안 합니다.

○이윤성 위원 사실 우리가 천안함 피폭사건이

라든가 서해에서의 세 차례 있었던 연평해전, 대전, 더 더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KAL 858기 폭파, 아웅산 폭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내가 북한이라는 건 북한 지도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게 어디서 있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한 적도 없다”, 연평도 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뭐 현지 지역사령관이 했는지, 우리는 금시초문이다”, 금시초문이라는 얘기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앉아 있지요. 이건 거의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객관화되어 있고, 이 사실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이윤성 위원 통일부!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이윤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핵 관계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교통상부의 보고를 봐도, 통일부의 보고를 봐도 리처드슨 주지사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일면 군사행동, 일면 주변국을 동원한 외교, 이런 이중적 자세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격 연습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평양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의 얘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은 핵시설에 대해서 IAEA의 감시단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연료봉 해외에 반출하겠다고 한다. 팔겠다고 한다.”…… 이것 완전 물타기지요, 뭐.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에서는 이 빌 리처드슨을 특사로 봅니까, 특사로 안 봅니까? 먼저 외통부에서 얘기해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의 방북은 개인 자격으로, 사적인 방문입니다.

○이윤성 위원 민간인의 경우라도 친선으로 추대할 경우가 있는데 친선으로 추대했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성 위원 미국은 이런 발표가 있은 뒤에 “만약 주지사가 귀국하면 보고를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보고를 들을 것이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아마 협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 아니, ‘일단 보고를 들을 것이다.’……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는 북한의 이야기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까, 외통부에서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윤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미국 정부도 이 방북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들어오라고 그러고 엉뚱한 시설 보여 주고 나중에 결정적인 경우에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게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엄종식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도요.

○이윤성 위원 외통부는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윤성 위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인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 5도, 그 가운데 대연평도·소연평도, 연평도입니다. 연평도가 지금 인천 옹진군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연평도에는 16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요. 주민등록지만 1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한 5000명, 대청도 다 하면요, 서해5도를 죽 하게 되면 약 한 1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주민 가운데에서는 뭐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이라도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했고요. 해병대 2명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 ‘우리가 그들을 괜히 긴장시키고 민감하게

대응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시 이주단지도 마련을 하고 각 생필품도 공급을 하고 또 생활안정 비용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고향하고 집하고 같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전혀 다르다, 외통부니까 외국만 상대한다, 통일부니까 북한만 상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부 전 부서가 이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윤성 위원 원래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제 습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예, 이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희 위원 한나라당의 전재희 위원입니다.

아마 이즈음 신앙을 가지신 분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염원은 같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시각의 다름이 북한의 오판에 혹시라도 더 도움을 줄까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주기적·통상적·방어적·공개적인 훈련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전재희 위원 앞으로도 NLL 선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전재희 위원 그럴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재희 위원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외교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희 위원 그러나 외교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내에서라도 단호하게 부당한 것을 얘기하는 외국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어 주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북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절실하게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방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방문이고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의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확인되어야겠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이 어제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들어 놓은 연료봉을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에는 우라늄 매장량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뭡니까? 무기를 제조해서 파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자꾸, 뭡니까? 비싼 무기를 사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의이든 아니든, 설사 진의라고 하더라도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이에 대한 감시·검증팀 수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은 저희들은 그것을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전재희 위원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협의할 때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평도 주민들이,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심정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안다, 안다 하더라도 당사자만큼은 절실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 폭격을 당하신 분들은 정신적인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명, 난청, 악몽, 이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 지원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특별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동시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평도 주민지원 특별법이 발효된 만큼 정부에서는 어떤 것에

우선해서 세심하게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전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전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이번 포사격 우리 훈련할 때에 연평도에 미군이 한 20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20여 명 있었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 미군이 거기에 가 있은 것은 만약에 다시 추가 도발을 한다든가 사격을 빌미로 해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그 사격을 비난해서 다시 도발할 때에는 미군도 가만히 주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쪽에서 도발을 못 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글쎄, 그거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병국 위원 그런데 그런 도발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좀 줄어졌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병국 위원 영향은 좀 미쳤겠다…… 그런 것 보면 북한이 우리 남쪽은 만만히 보고 그래도 미국하고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위 자기들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의 그런 일환이 거기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글쎄, 하여튼 저희가 굳건한 방위 의지를 가지고 대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병국 위원 이거는 뭐 확실한 게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그런 요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최병국 위원 그동안에 북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사격도 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대해서 가공할 무기이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통상적인 것, 해안포 사격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장상곶·옹진반도서 수차례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최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말을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해에서 사격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북한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병국 위원 물론 미국이 우리 서해에 와서 우리와 같이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밑에서 어떤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중국이든지 또 러시아 같은 데에서는 약간의 긴장도 할 수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은 거는 아니겠지요?

(유기준 간사, 남경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최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서해에서 중국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우리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리고 동해에서도 러시아가 군사훈련 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런데 왜 자기들은 군사훈련 해도 괜찮고 우리는 군사훈련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최병국 위원 그게 약소국의 비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수차례, '북한이 도발할 때에는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 여러 번 천명을 하고 합니다. 그 대처라고 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그것을 격퇴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못 하도록 하겠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국 위원 이 북한이 6·25 남침 때에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남쪽에 내려오기만 하면 북한의 동조 세력들인 소위 남로당 당원들이 봉기해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런 착각을 갖고서는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최병국 위원 지금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하는 거는 남쪽에서 그들의 동조 세력인 종북 세력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하여튼 북한의 도발 의도 가운데에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국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상응한 도발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도 적에게 대응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국방부 측에서 아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리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국방부장관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국방부장관에게 못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 그 대비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쪽에서 활개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 그것 뿌리 뽑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NLL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최병국 위원 6·25 때 참 동족상잔의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쪽은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개성도 뺏기고 옹진반도도 다 뺏기고 이랬습니다. 동쪽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고성·양양도 우리가 좀 점령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 그 육지 선에 맞추어 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동쪽에는—38도가 그 당시 휴전선인데—휴전선에서 조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지금 38도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연평도가 아마 37.58도인가 그 정도 돼 있을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그 균형 맞추기 위해 가지고 휴전할 때에 NLL이 그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고, 저 밑에 내려온 개성이든지 저 남쪽 그쪽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요새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게 바로 종북 세력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왜 단호하게 대응을 못 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정부는……

○최병국 위원 서쪽바다도 그 밑의, 개성 밑으로까지 해 가지고 다 떼내주자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하여튼 NLL의 법적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지금 종북 세력들이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은 자작극이고 연평도 공격은 국내용으로서 우리가 유도했다느니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잠재우는 것이 그게 북한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병국 위원 '정부로서는' 자꾸 그리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해 주세요.

또 그리고요.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 도발할 때는 꼭 평화공세를 같이…… 그것을 자기들 배합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25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요새 IAEA에 참석도 하고 핵 사찰도 받아들이고 어쩌고 운운하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예.

○최병국 위원 더 큰 도발을 위한 어떤 무슨 시사를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진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저 사람들은 위장 평화공세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필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기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지금 출석해 계시지만 통일부장관은 2시 30분경에 출석할 수 있다는 연락이 있었으므로 일단 통일부차관이 좌정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 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박의춘 북한 외무상 방러 기간 동안에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또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는 한·러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긴밀한 대화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이번 UN 안보리에 러시아가 소집을 요구한 이후의 행보를 보면 한국 편을 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합동훈련을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볼 때 지금 과연 대 러시아의 태도는 무엇인가,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또 앞으로 대책이 뭔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사실 이번에 러시아가 안보리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쪽에서 사격훈련이 있으면 그것이 북한의 대응으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양측에 자제를 요구하는 쪽에서 드래프트(draft)를 냈다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원인 행위를 처음 제공했던 북한의 연평 포격 도발을 규탄해야 된다는 쪽에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지 않아서 성명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저희들로 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중국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훈련은 조금 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훈련을 얘기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중국의 언론 보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러시아와의 관계를 본다면 러시아는 인구가 아무래도…… 2억 3000 정도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요새 2억은 좀 안 되는 것으로, 한 1억 6000 이렇게……

○김충환 위원 인구가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되고, 땅은 굉장히 크고 자원이 많은 가운데에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태평양 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또 남북한 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전략적인 관계 발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외교가 러시아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인력이나 또는 그 밖의 예산,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러시아의 근무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악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물가도 많이 높아졌고 특히 애들 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러시아 가는 것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대러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나머지 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 말하자면 직원을 조금 늘린다거나 인센티브를 좀 주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획기적으로 전략적인 중점을 두는 이런 노력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러시아하고 금년 한 해에 인적 교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극동 지역에서의 투자가 협의가 되는 것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또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또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대사들도 그동안 중국 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중국 전문가들보다는 비중국 전문가들이 많이 갔던 것으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또 실제로 거기의 간부들도 정통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 전문가보다는 그저 부분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 또는 연수를 받은 정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인 외교, 중국과 러시아를 잘 아는 외교관 또 전문가, 폭넓은 인맥을 갖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국가 이익을 좀더 확실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김충환 위원 연구를 하셔서 단지 인센티브 좀 주는 게 아니라 무슨 특별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충환 위원 이번에 리처드슨 방북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정치인 개인의 행동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이번에 리처드슨이 북한과의 어떤 협의를 또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부분들, 핵문제 등등에 대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번에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문은 사적인 방문이고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핵문제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부분도 그것은 조금,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문을 이용해서 CNN까지 동행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선전에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리처드슨 주지사는 사실 핵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 저희들이 도착하는 대로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실제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지면 또는 그런 의도를 다른 루트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대북관계 또는 이 6자회담 관계에 대한 어떤 입장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정부도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고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 정부가 반드시 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어제 서해 5도에서 우리가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격훈련을 마쳤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북한이 그토록 핵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위협하고 압박을 해 오더니 어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북한

이 대응을 안 했다고 보시나요, 못 했다고 보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과거에도 우리 측에서 강한 입장을 취할 적에는 북한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대응을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대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그들은 항상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도발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선영 위원 오늘 점심에 회의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 대해서 각별히 우리가 유의를 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박선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실 수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고요.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가 기밀이 될 수도 있고 군사작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국민 공표를 바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어제고요, 현지 시각으로 하면 모레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엔 안보리의장 성명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 정부는 처음부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문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입장을 사실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의장 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내밀었던 초기의 문서에 보면 '북한'이라는 단어도 빠져 있고 '연평도'라는 단어도 다 빠진 채 아무 지역도 없이 '11월 23일의 포격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반도'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고 북한을 직접적으로 규탄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는 의장 성명 채택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입지를 오히려 좁힐 뿐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성락 본부장께서는 러시아 방문을 바로 네닷새 전에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한 일주일 전……

○박선영 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14, 15일에 했고 러시아가 안보리 소집한 것은 18일, 19일이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토요일 날 밤…… 예, 저녁에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시차를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4, 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러시아가 이런 카드를 내밉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러시아는 아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과장되게 평가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어떤 답변을 하셔도 우리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과 네닷새 전에 가서, 우리 본부장급이 가서 외교를 했는데도 러시아가 생뚱맞게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 나오토 일본 수상이 북한의 급변사태 시에 자위대 파병 운운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혀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발언은 저희가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고요. 그 현장에서 본인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장관님께서 외교안보수석을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9월 22일 날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유엔총회 기간 동안에 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9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2일 날 일본 동경에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최고위급 인사가 저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

한에 유사 사태가 발생을 하면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미국하고 얘기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제 귀를 의심해서 다시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했더니 '아무 이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몰랐다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 정부를 따돌린 것이고 알고도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신다면 그것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좀더 생각하시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그런데 그 문제는……

○박선영 위원 그 말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과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지만 작전권은 미국에게 있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작전권이 미국에 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나라 NLL 지도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 까만선이 우리 NLL이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이 빨간선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NLL은 60년이 넘도록 지금 이 NLL을 얘기하고 있고 NLL 영토를 우리가 수호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북한은 이 선을 요구한 것이 99년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리고 84년도에 김정일은 분명하게 그때 우리 수해물자가 올 때 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전에 대동호가 좌초를 하자 '그 군사분계을 넘기 전에 승선을 완료해라. 배로 사람들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999년도에 북한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말도 되지 않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53년도에 이 선을 그었던 것은 영해가 그 당시에는 보통 3해리로 인정이 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3해리였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 영해가 3해리가 안 되는 곳에는 접경에서 반을……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절반을 인정해서 이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동어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이 논의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어로구역을 참 시기도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했던 공동어로구역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NLL에서 딱 중간 지점을 그 당시에, 2007년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요구를 했고 북한에서는 지금 제가 핑크빛으로 표시한 이 곳입니다.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NLL 남쪽으로만 북한은 공동어로구역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공동어로구역 설정 논의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NLL 이남 쪽으로만 공동어로구역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화수역을 만들자. 평화수역을 설정하자'라고 한다면 장관님께서는 평화수역이 어디에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지도상?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 NLL을 건드리는 선에서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영 위원 그리고 이 NLL은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하고, NLL이 무너지면 서해 5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서해 5도가 없어지면 수도권, 서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

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와 국가 안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 한나라당의 김효재입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북한의 우리 국민에 대한 포격 또는 살상행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간에 특별한 이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고 나서 여야 간에 나오는 논평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의 코멘트(comment)를 보면 저는 사실 이게 내가 생각한 상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스스로 두 번·세 번, 열 번·스무 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이 사태, 포격 사태로 우리 정부가 혹시 득 본 거 있습니까, 외무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덕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국민이 단결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재 위원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공격해서 득 본 거 있습니까, 혹시? 돈 벌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없지요.

○김효재 위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이번 긴장을 조성한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긴장을 조성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효재 위원 아니, 연평도에 멀쩡하게 있는 우리 민간인에게 대포로 쏴서 민간인을 살상한 행위를 대통령 또는 이 정부의 그 어느 누구라도 북한에 그런 걸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없습니다.

○김효재 위원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효재 위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분이 야당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저는 정말 슬픕니다.

이분은 또 같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이 다시 포격 대응을 해서 무력도발을 한다면 이 나라 전체를 안보정국으로 이끌어 가면서 독재정치를 가속화했을 것이다' 지금 이 정부가 독재정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효재 위원 한 말씀 하세요. 어떻게 이런 말이…… 정치인은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반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야당 지도자께서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제 사격훈련은 일상적 훈련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었다'.

어제 사격훈련이 일상적 사격훈련이 아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재 위원 분명히 정부가 일상적인 사격훈련이라고 하고 예고된 것이고 국제사회 모두에게 우리의 어떤 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수역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다 알린 사격훈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재 위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연평도에서의 주권행사와 국군의 작전권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격훈련은 주권행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자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격훈련이 주권행사 문제가 아니다'라는 야당 지도자의 시각입니다.

이번 사격훈련은 우리 영해가 아닌 남의 땅에서 실시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김효재 위원 그 사격훈련 구역이, 폭탄이 떨어지는 곳이 분쟁수역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는 분쟁수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게 희미한 대답 마세요. 그게 분쟁수역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김효재 위원 분쟁수역이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효재 위원 우리 바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우리 영해입니다.

○김효재 위원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다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효재 위원 그러면 내 땅에서 우리 군대 훈련시키는 것이 주권이 아니면 어떤 것이 주권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번 훈련은 당연히 우리의 주권사항이지요.

○김효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왔다가 국회 정문을 나서다가 플래카드 하나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제 보좌관들에게 사진을 찍어 두라고 했습니다, 언제가 이것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조,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 이 플래카드를 보고 혹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여기에는 연평도에 누가 포를 쐈다는 것에 대한 주체가 없습니다. 중국의 논평 같습니다. 연평도의 포를 누가 쐈어요? 우리 국군이 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김효재 위원 유령이 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에서 쐈습니다.

○김효재 위원 중국에서 쐈어요? 북한에서 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북한의 연평도 폭격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야당의 시각이 여기에 다 있었던 것인가. 저는 이번에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서 안보에도 이렇게 큰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정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밝히세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야당 지도자분의 언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번 훈련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우리 영해 내에서 행사하는 주권사항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재 위원 저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 훈련이 주권사항이 아니라는 야당 지도자의 그 시각에 관해서는 정말로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 사회가 우리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야당이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것이 조폭이 골목길에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하고 다니고 세금 내놔라 마라 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그들에게 월세 주고 돈 주고 그냥 적당히 무마해서 살자는 것인지, 담 넘어 들어와서 내 딸을 강간하고 가도 그냥 놔두자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러시아의 외교적인 대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러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김효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이번에 연평도 해상 포사격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우리 주중대사를 불러서 포사격훈련을 하지 말 것을 종용을 하고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포사격이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러시아도 그랬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러시아도 이런 긴장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사격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해상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군사방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 앞으로의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이 두 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긴밀한 외교적인 관계가 유지·발전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두 나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균열과 마찰이 있지 않으냐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은 마찰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을 밝혔고, 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권사항으로서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박주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유연한 관계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외교관계가 유지될 것이고 또 더 향상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안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두 나라가 우리한테 자제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번 연평 포격 때 북한이 포격을 해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한 짓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찰이나 균열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안은 갖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뉴멕시코 리처드슨 지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 지사가 관광여행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미국 정부에 신고하고 거기에 갔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분의 신분으로 봐서 일개 개인 신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의 양해를 받았거나 사실상 미국 정부의 준특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용 핵연료봉을 반출하겠다, 그리고 IAEA 사찰단의 사찰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의 한반도 비핵과 관련된 상당히 진전된 신호를 보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제는 한반도의 비핵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북한에게 유리하게 돼 가지고 한반도 비핵 문제로 해결이 어렵고 핵확산 금지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는 대화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반도 비핵 문제를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남 군사도발, 침략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6자회담 개최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도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점에 왔으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다만 지금 시점상 안 맞는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리처드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처드슨 주지사는 미국 정부도 미국 정부와 무관한 사적 방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고요. 또 리처드슨 주지사는 그동안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분의 방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일종의 홍보라고 할까요, 선전에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이 그러신다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2009년 1월에 한반도 비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에 있는 미사용 핵연료봉을 점검하고 이것을 우리가 매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고 국회에 보고

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미사용 핵연료봉과 관련된 북한 당국과의 교환된 의사 내용이 뭐였고 그다음에 정부가 핵연료봉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했다면 왜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당시에 미사용 연료봉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갔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미사용 연료봉은 북한이 그냥 반출하는 것이 아니고 팔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조건과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체 더 이상 북한하고는 대화나 협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6자회담에 진전이 있고 북한과 대화가 돼서 상황이 된다면 그 문제는 이미 서로 한번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35년 전에 기밀 해제된 미국무부 외교문서를 보니까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75년 2월에 외교전문을 통해서 북방한계선 NLL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보도에서 봤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NLL을 침범하게 되면 국제법상 북한이 저촉된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사정전협정에 저촉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키신저 박사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주장한 국제법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정전협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NLL은 정전협정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NLL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NLL을 침범한 것이 정전협정에 위반이 돼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정전협정의 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전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주선 위원 김영삼 정부 때 당시 국방부장관을 했던 이양호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비무장지대에는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남방한계선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에서 그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우리가 북방한계선이라고 그어 놓은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지 이것은 정전협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법상 NLL이 유효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석이 돼야만이 북한이 NLL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발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 이미 NLL은 정전협정에 의해서 그어진 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제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NLL이 합법적인 우리 영토를 규정하는 북방한계선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1953년도에 NLL이 그어질 때 국제법은 평시 국제법이 아니고 전시 국제법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와서 무슨 평시 국제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국방장관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로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주선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상에서도 그동안 양측이 관할해 온 사안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오히려 10·4선언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합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이행이 되었더라면 서해 5도에서의 군사적인 불안이라든지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훈련한 것은 우리 수역 내에서 우리가 죽 해오던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거기에 무슨 주권이니 뭐니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말씀이겠지요.

○송민순 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외교장관이 어디 나가서 우리나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다 외교주권이고 주권이다 뭐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송민순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요구는 그게 무슨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훈련을 해라, 그런데 긴장을 올리지 않게,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을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어요. 과거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긴장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민순 위원 아니, 북한이 올리든 누가 올리든 긴장이 올라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올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난폭운전을 하는 북한한테 신호등 잘 지켜라 이런 말만 하고 있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계속 여기서 훈련해 왔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훈련해 왔는데 왜 지금 상태에 와서 이 훈련 때문에 긴장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잘 좀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확고한 군사적 태세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양자외교를 하든 다자외교를 하든 6자회담을 하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 끝난 다음에 두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저의 보충질문은 다음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서해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어요. 이번 문제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가 유엔안보리에 들고 가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 바람에 분쟁수역이라는 각인을 하는 데에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휴전체제가 불안전하니까 결국 이것이 북한이 선전하는 식의 평화협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유엔안보리에서의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북한이 포격을 했을 때 바로 안보리에 들고 가서 우리가 원고의 입장에서 북한을 피고석에 세워서 따져야 되는데 왜 그때는 하지 않고 지금은 마치 공동피고 비슷하게 불려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러시아가 들고 나온 포격훈련 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이걸 자제하는 모습으로 되어 가지고 북한은 오히려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을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따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

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사적인 부분은 지금 두 분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는 뭐든지 비예견적이고 비재래적이고 비대칭적으로 도발을 해 올 겁니다. 우리가 365일 계속 긴장상태를 가지고 살 방법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는 것하고요.

다음에 통일부장관 말씀이지요,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단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북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단합, 대통령이 든 깃발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통합을, 소위 파당적 견해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국민의 단합을 리드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 말씀이지요, 안보 관련 장관님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이라든지 역사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인이 어떻든 관계없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과는 지금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진영외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충돌국면으로 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이 역사적으로 늘 제일 먼저 희생이 되어 왔는데 왜 이런 진영을 해체하고, 냉전을 해체하고 지역에서 협력과 공동의 안보를 위한 노력을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외교장관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해 5도 이 문제가 있는데 서해 5도 이것은 지난번 공동어로수역 말씀이죠, 공동어로수역 그 지역에 우리도 못 가고 북쪽도 못 가고 하니까 중국 배가 와서 고기를 잡아가고 그래서 양쪽의 어민들이 다 피해를 입으니까 지금 되어 있는 그 한계선, 경계선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인정을 했던 그 경계선의 양쪽을 동일수역으로 해 가지고 공동어로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발상이 어떻게 NLL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간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기준 간사, 남경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말씀이죠, 조금 전에 NLL 그것은 통일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사건만 생기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개성공단 출입 인력을 이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사실 개성공단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인원이 거기에 억류가 될 정도 되면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국 국면에 가고 그거야말로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방식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긴장만 올라가면 사람 못 가게 하고 물자 가기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인지, 그것보다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북한이 거기 우리 인력의 인원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이러한 태세를 갖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위원장 남경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우선 이번에 서해를 분쟁지역화 해서 북한이 성과를 얻었다 하는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유엔안보리에서 아무도 그런 견해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북한 성과라고 저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평화협정 문제는 언젠가는 평화협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북이 러시아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안보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첫 번의 어떤 초안과 다른 수정안을 통해서 북한 규탄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갔다는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영외교라는 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러가 전략적으로 협력을 못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러시아와 협력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님,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필 답변 있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국가 지도자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 지도자가 국가를 수호하고 또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미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 주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는요, 사실 개성공단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성공단이 어쨌든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어제도 그런 안보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의 방북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루 차단했습니다마는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를 하겠죠. 그러나 그 탄생과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최근에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에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또 합의하고 왔는지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쪽에 통보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디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윤상현 위원 디브리핑을 받으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장관님, 그 내용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요지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도발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점을 자기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도발하지 말라?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의 반응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대개 아마 알았다는 정도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중국이 연평도 포격 이후에 줄기차게 주장하는 6자회담 재개,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인 지지태도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마는 원문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저도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는데 어디 언론을 보면 대북제재 해제요구

를 먼저 들고 나왔다라고 하고요, 또 어느 언론에서 보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의 완전히 상충되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장관님께 여쭸는데 적극적인……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태도를 보였다.

○윤상현 위원 태도를 보였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장관님께서 미국 가셔 가지고 힐러리 장관 또 일본 외상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개 선결조건에 합의하셨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다섯 가지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언론에 꼭 보도된, 뭐 맥락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표현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필립 크롤리 미국 공보담당 차관보가 얘기를 했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자분들의 말씀으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한·미·일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어떤 조건에 합의를 하셨는지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필립 크롤리 차관보가 얘기한 데서 제가 좀 더 하기는…… 내용이 조금 곤란한 것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서로 상세히 밝히지 않기로, 완전히 합의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필립 크롤리 차관보도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만약에 그러면 5개, 하여튼 간에 그 선결조건에 남북한 관계 개선이 들어갑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부분은 뭐 꼭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남북한 관계 개선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렇게 있지는 않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꼭 반드시 명시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의 한·미·일 간에 합의된 게 어느 정도 북한이 수용을 하면 6자회담은 재개되는 거네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북한…… 그런데 그것은 한·미·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합의를 해야 북한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것은…… 한·미·일 사이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간에 6자회담에 대한 5개 선결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했더라도 북한이 지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희들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윤상현 위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지금 이제 김정일이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서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의 군사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런 어떤 북한 내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어느 정도의 긴장 고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화의 때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잭 프리처드 KEI 소장이 '6자회담 목적이 비핵화라면 그것은 죽은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 6자회담 재개를 해 봤자 북한의 비핵화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6자회담 재개를 하더라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비핵화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적어도 장관님이 보면 6자회담이 2003년도 8월 달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6자회담을 해 오는 와중에 북한이 계속해서 1·2차 핵실험을 했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오히려 핵 강성대국으로 핵 무장화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정말로 필요한, 이게 물론 다자적인 틀입니다마는 6자회담이 정말로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 회의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상당 부분 또 일리가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6자회담이 더 이상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6자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진전을 전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상현 위원 예.

리처드슨 방북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리처드슨의 방북이 사적인 방문인 거 압니다마는 CNN 기자가 동행을 해서 CNN 브레이킹 뉴스로 'IAEA사찰단 복귀 허용한다' 또 '1만 2000개 핵 연료봉 반출 약속한다' 만약에 북한이 이런 어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시간 벌기를 위한 유화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일종의 평화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평화공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나? 시간 벌기 하려는 북한의 숨은 의도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결국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쉽게 포기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한 가지 제가 여쭤 볼 게 있는데요, 북한의 핵 연료봉 1만 2000개를 우리 정부가 사들인다는 것, 작년 초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오갔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때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죠,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높았고요, 또 연료봉을 재가공하는 데 있어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 연료봉 구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것은 그 한 건만 딱 따로 떼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말하는 것이 늘 보면 조건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NN 보도만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신낙균 위원입니다.

어제 연평도 사격훈련이 있었고요, 또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했습니다. 그것은 훈련으로는 잘한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긴장했지만 무사히 또 비교적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끝낸 것, 1시간 35분 정도니까 끝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은 우리 주권사항임이 분명하고 방어훈련으로도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중지 아니면 연기를 요구했거나 바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러시아라는 두 나라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친북파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방이나 안보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사격훈련 이걸 아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논조에서도 그러나 지금부터 북 도발이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포 사격 훈련 이후 북 도발 더 위험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NLL을 지키는 것이었는

가, 그런 것 한번 다시 묻고 싶은 겁니다. 장관님은 그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조금 최근의 논의를 보면 선후가 바뀐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이 훈련을 트집을 잡아서 도발을 했던 것은 북한 측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도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걱정에서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을 봤을 때는 저도 훈련 자체로는 잘한 거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달자는 건 아닌데, 지난번 연평도…… 하여튼 북한의 도발을 조금이라도 옹호하거나 뭐 평가할 의미가 아니고 저도 똑같이 규탄하고 비판하고, 그건 한없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연평도 도발에 오히려 우리만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 것에 대해서 같이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대응을 적절히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단호하고도 가혹하다 소리를 들었을지언정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능했는지 준비가 부족했는지, 어쨌든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무능의 하나겠지요. 그것 못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속칭으로 평가할 때 아주 보수인이지만 지성인으로 꼽는 남재희 전 국회의원이면서 노동부장관 하셨던 분, 윤여준 이런 분, 그런 분들의 말씀도, 그분도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서 "중지하라", "연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그리고 남재희 전 장관 같은 분은 이 대통령이 강경파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경고까지도 아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저도 이 점을 매우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조금 더 북한 편에, 편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러시아는, 여기 위성락 본부장 계시지요? 러시아는 우리하고 동조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

계십니까, 여기?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예.

○신낙균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신 걸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문제를 조금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러시아하고의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제가 가서 협의했을 때는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견해가 같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신낙균 위원 예, 러시아가 그러면 이렇게 돌변해서 중단 촉구…… 돌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 안보리에 이런 문제를 회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그때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신낙균 위원 논의는 물론 안 했겠지만 분위기로……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그때는 우리 훈련 문제가 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신낙균 위원 하여튼 간에 러시아가……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정말 국방부장관처럼, 김관진 장관처럼 "과거에는, 약소국이었을 때는 강대국의 말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말에 우리 외교부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는 계속 러시아 측과 협의를 해 왔고 러시아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막판에 러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저희가 판단컨대는 북한의 대응에 대한 좀 과도한 평가가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좋은 뜻에서 했다고…… 저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것을 나쁜 뜻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낙균 위원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남북문제는 진짜 이게 우리 민족 문제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낙균 위원 하지요.

그런데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위원 가능하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신낙균 위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에, 지금 미국을 떼놓고는 얘기 안 하시겠지요? 그러면 그런 데의 도움, 협조 없이도 가능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주변국과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의 주체는 역시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위원 해결의 주체와 협력 없이도 자주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자주적이라고 그래서 협력을 전혀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신낙균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협조는 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낙균 위원 예.

그러면 꼭 남북문제만 아니라도 지금 이런 글로벌시대에 중국, 러시아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격이 가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게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은 한국이 말한 판단이 옳았다, 저는 이렇게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서로 판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 정부 나름대로 판단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낙균 위원 예, 나중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신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먼저 외교통상부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뭐 넌센스 퀴즈 같은 얘기를 이 회의장에서 하게 돼서 좀 저도 유감입니다만 아까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애도합니다' 이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해가 떴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쪽에서 해가 떴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뭐……

○원혜영 위원 맞는 얘기지요?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지요? 참 국회가 이 모양이 된 게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아까 또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키신저 박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원혜영 위원 혹시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한 것이 키신저가 장관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건 아니고요.

○원혜영 위원 그러면요, 내가 좀……

김 장관님이 박사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세요?

그러면 석사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원혜영 위원 학사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원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김 학사님의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례지요? 지금 현직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하고 제가 여쭤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원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장관께서는 현직 미 국무부장관을 키신저 박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미 국무부, 나아가서 미 정

부의 의견이 아니라 아무리 고명하지만 미국의 한 유명한 정치학자, 외교 전문가의 견해로 얘기를 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분이 현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통상 키신저 박사 그래서 제가 키신저 박사라고 그렇게 한 거지 무슨……

그건 아닙니다.

○원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발언이, 발언도 아닙니다.

국무부장관 키신저가 '수신자 :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 주한 유엔군사령관, 호놀룰루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한테 즉시 보낼 것'이라는 지시하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 공문 하에서 내용이 자신의 명의로, 장관의 명의로 외교전문을 보냈고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해를 구분 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개인 의견입니까? 미 국무부 장관으로서 미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당시에 확립된 미 정부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원혜영 위원 확립되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미 국무부장관이 주한 미 대사관, 태평양함대 사령관한테 보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위원님 전문, 풀 텍스트(full text)를 보지 않는 한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원혜영 위원 장관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도 못 보았습니다.

○원혜영 위원 보시고 다음번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원혜영 위원 지금 시간 줄이기 위해서, 보시고 그러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풀 텍스트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견해에서……

○원혜영 위원 상식적으로 현직 미 국무부장관이 미 대사, 유엔군사령관, 호놀룰루 태평양함대 사령관한테 보낸 게 확립되지 않은 견해 보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건 미국 장관으로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연구해 보자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풀 텍스트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다……

○원혜영 위원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의 확립되지 않은 견해를 대사한테 또는 이런 관계자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알아보고 나서……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희는 종종 보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원혜영 위원 확립되지 않은 정부의 견해를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이런 견해에 대해서 귀 관의 견해를 알려 달라'라고 저희들 종종 그걸 보냅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이고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고지하는 전문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원혜영 위원 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장관이 국가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입장을 전달합니까, 이렇게 전문으로, 공식 전문으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려는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질문을……

○원혜영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키신저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확립된 견해가 아니다, 잘못된 견해다, 그러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확립된…… 미국 정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미국의 견해는 어떤 때 공식 견해라고 하는지, 미 국무부장관이 공식 전문으로 대사관이나 함대사령관한테 보낸 것이 공식이 아니라면 어떤 건지, 그것까지도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건 서면으로 제

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예.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연평도에서의 포격, 사격훈련이 북한의 대응이 없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물론 추후라는 게 뭐 중장기적인 얘기가 아니고 당장 이 국면에 연계된 어떤 시간차 도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위원 구체적으로 이번 애기봉 점등식에 대한 북한의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이 도발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래에 전개될 어떤 상황을 예견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유형의 도발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예.

제가 본질의 준비한 건 아까 쓸데없는 애기들 가지고 맞대응하느라고 시간을 까먹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6·25 이후에 최고 수준의 위기가 어제 우리 국민이 느낀 불안감이었고, 문제는 이제 사격훈련은 끝났는데 이게 상황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앞으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외통위에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건가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좀 메시지를,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서 좀 안정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평도 사태는, 연평도는 어쨌든 우리 영토인데 11월 23일, 오늘이 12월 21일, 한 달 됐단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한 달 경과하면서 이 한반도가 세계인의 이목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또 강대국들의 이익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금방 아까 외교장관 말씀이 자주적인 해결 의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천안함 후에 동해에 조지 워싱턴호가 훈련하러 들어갔고 또 연평도 사태 후에는 서해에 들어오고 또 보도를 보면 내년 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훈련 한다고 그러고 또 러시아가 안보리 소집을 요구를 해서 6·25 이후에 최초로 전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말이지요.

결국 그러면 이 문제가 중국 사람의 문제냐, 미국 사람의 문제냐, 안보리 5개국의 문제냐, 이게 누구의 이슈냐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외교장관이고 통일장관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남북은 등 돌리고 적대관계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한·중 관계, 지금 외교부에서 말하는 거와 명실이 다르잖아요. 실제는 지금 아마 중국과 수교한 이래 최악의 상태입니다. 한·중 관계, 불편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3년 동안 두 분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장관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남북관계에 가장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정부의 역할, 장관의 역할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하고 아직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기 때문에 전쟁의 방향으로 몇 걸음을 집권 5년 동안 가느냐, 평화의 방향으로 몇 걸음 가느냐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정권 잡고 3년 동안 전쟁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온 거란 말이에요. 두 분 책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책무감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장관님……

○정동영 위원 조금 더 들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동영 위원 장관의 임무가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선 책무입니까? 아니면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키우고 평

화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보조하는 것이 임무입니까? 짧게 얘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당연히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동영 위원 그렇지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임무지요? 맞지요?

우리 현 장관,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당연히 평화가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정동영 위원 전임 정부, 참여정부 5년 동안……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어떤 평화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 보세요, 내가 질문할게요.

참여정부 5년 동안 민간인 사망자 몇 명이에요? 군인 사망자 몇 명이에요? 없지요? 민간인 사망자 없지요? 군인 사망자 없지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정권 잡은 지 3년 만에 천안함, 정부 발표대로라면 합쳐서 51명 아닙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몇 명 더 죽어야 됩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민간인·군인 사망자 없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장관님……

○정동영 위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교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물론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할 거고 또 나중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잘못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동영 위원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물러난 뒤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지요. 그런데……

○정동영 위원 지금 외교안보정책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적 책무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동의합니다.

○정동영 위원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보조하는 핵심 참모인데 결과…… 3년 뒤에 남북관계는 적대와 6·25 직후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고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18년 만에 최악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반도는 열강 강대국의 국익·이익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이익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 책임으로만 돌리는가, 그것을 보좌했던 외교안보수석,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책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은 듣고 싶은 게 뭐냐, 앞으로 이 한반도 상황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거를 국민 앞에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쯤 연평도 주민들은, 1350명의 주민이 다시 돌아가서 발 뻗고 생업에 종사할 것인가, 앞으로 이 정권 끝나기 전에, 2년 내에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연평도 주민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동영 위원 2년 내에,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다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자, 이제 방법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북대화 해야 되지요? 현 장관, 3년 동안 내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해 오고 뭘 해 봤어요? 현 장관, 북한 당국자하고 만나서 회담해 본 것이 몇 번입니까?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동영 위원 대통령 가장 옆에서 남북문제를 보좌한 통일부장관인데 이런 참담한 결과가 온 데 대해서 책무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남북대화,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좀 말씀을……

○정동영 위원 제가 낮에도 일본 대사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당신의 지혜를 좀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디다. 동의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 아까도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것 이분법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화가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개념이다.'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옳고요.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부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 말씀처럼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마치 전쟁으로 달려갔고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는 평화로 달려갔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몇 번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몇 명 이 정부에서는 났기 때문에 이 정부는 더 전쟁으로 달려갔다, 저는 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과연 지난 5년 정부가 이루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평화……

○정동영 위원 자, 따지는 거는 여기까지 따지고 싶지 않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래서요……

○정동영 위원 남북대화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남북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 필요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 언제쯤 통일부가 통일부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어쨌든 저희가 통일부로서 역할을……

○정동영 위원 2010년까지는 이제 틀렸고 2011년에는 좀 새롭게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틀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통일부가 그래도 통일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그 점도 저희들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일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남북이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동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전임 외교차관이 "중국이 북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 대사하고 나누어서 이걸 전문으로 보고한 것이 위키리크스에 나왔는데 우리 김성환 장관께서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듣기로는……

○정동영 위원 자, 그런 정보를 미국 대사하고 나누는, 외교부의 수준이 만일 그랬다면 지금 이 위기 초래한 데 있어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그런데 그 위키리크스 전문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직 외무부차관이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정동영 위원 그렇게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현 장관께서도 미국 대사한테 "2015년이면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뭐 김정일 위원장 건강진단서라도 입수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제가……

○정동영 위원 모여 앉아서 매번 북한이 붕괴할 거니까 압박하자,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위키리크스에 나온 내용 자체도, 바로 지금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상히 그 안에 어떻게 원문에 쓰여 있는가를 보시면 그게 제가 한 언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두 분이 몸담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현실 인식과 정세 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자기의 어떤 희망과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지난번에, 과거에 미·북 적대관계 청산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한반도의 상황을 직시하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다시 논의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도 있는 대로

직시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데에서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위원 이번 연평도 포격 훈련에 북한이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연일 천명을 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 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북한의……

○김형오 위원 어떻게, 분석을 정부 쪽에서는 할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 우리 쪽에서 강하게 갔을 때에는 항상 북한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온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형오 위원 아,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 조용하더라……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형오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 쪽에서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이번에 북한이 또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나 압력을 넣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얘기는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결정적인 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형오 위원 미국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은 북한하고 직접 접촉이 없으니까요.

○김형오 위원 미국이 접촉은 없었지만 공개적으로 첨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와 끝까지 같이 간다는 점을……

○김형오 위원 그것이 북한의 대응을 못 하게 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오 위원 또는 북한이 허장성세로 말만 사실 했지 우리에게…… 한미 연합이나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각오를 해 가지고 북한이 어떤 불장난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확실한 어떤 의지를 보이니까 북한이 스스로 준비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것은 아닐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뭐 준비 부족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강한 의지……

○김형오 위원 아니, 개인의 언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측의 판단을 내가 묻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준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형오 위원 이번에 연평도 포 훈련하기 직전까지 여러 군데에서 포 사격훈련 중지하라는 얘기가 많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있었습니다.

○김형오 위원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군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뭐 북한의 판단을 더 흐리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오 위원 북한의 판단을 어떻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흐리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오 위원 흐리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오 위원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일부 포 사격 하지 말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서 우리 군에서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형오 위원 저는 말이지요, 이번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국론이 일부 분열된 듯한 인상을 보인 것은 대단히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우리 군에서 포 사격을 안 했다면 아마 역사상 국내외적으로 가장 허약한 정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저는 흔들리리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

○김형오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번에 이 훈련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방송, 뉴스 보도에서는 헤드라인 뉴스 장식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훈련하는 거를 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형오 위원 더군다나 유엔안보리까지 러시아가 이걸 문제로 소집을 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자, 남의 나라의 군사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안보리까지 간 적이 있어요? 나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보리의 성명서 채택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무산이 되었는데 이게 한국 측의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아니, 그러면 채택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김형오 위원 그러면 우리는 채택이 안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일정 부분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외교적으로 승리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교적으로 실패한 거는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오 위원 바라는 대로 되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형오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말이지요, 우리가 연평도 북한의 무모한 포 사격으로 인해서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따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정부가 아직도 유엔안보리에 제소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또 그 차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맞는지,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 내정간섭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유엔안보리라는 것은 무슨 사항이든 논의할 수 있고요. 안보리 이사국들……

○김형오 위원 아니, 우리가 군사훈련 하는 것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우리 역내에서 하는 것을, 그것 내정간섭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러시아가 내정간섭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형오 위원 적어도 말이지요, 러시아 정부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그런 점은 저희가 적절히 전달을 할 겁니다.

○김형오 위원 적절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뭐 저희는 외교를 하는 사람들……

○김형오 위원 외교하는 사람일수록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거를 취하지 않고 또 어물어물 넘어가면 말이지요, 어디에서 마음 놓고 우리가, 우리 군이 군사훈련 제대로 하겠어요?

나는 이번에 지극히 당연한 걸 왜 이렇게 문제를 키우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관계 당국이 심각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우리 영토를 지키는 우리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양 사방에서 관심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걸 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요?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알 거예요. 특히 젊은 우리 여성들도 불안할 거예요.

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통일부장관 한번……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가 좀 더 국민들에게 그……

○김형오 위원 저는 말이지요, 적극적인 입장을 여태 정부가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포 훈련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가

정부다운 입장을 가졌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 3년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우리 민간인이 피살됐습니다. 임진강 무단 방류해 가지고 또 죽었어요. 천안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평도, 첫 번째 한 달 전에 사격하다가 죽었어요.

우리의 대응태도가 구두선이었습니다. 허풍선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일부 우려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강력하게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민통합을 하는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줄 것을 나는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양 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국론이 분열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이렇게 국론이 어수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을 가지고 양 장관께서는 대통령한테 분명하게 확실하게 건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참에 국방·안보에 관해서는 확실한 국민 통합 그리고 안심시킨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달라 하는 그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김형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연평도 사격 훈련을 계획한 대로 끝내고 나니까, 제가 어제 지역구에서 활동을 죽 했는데 오후에 가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최전방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도를 하고 '정말 모처럼 정부가 잘했다' 이런 대다수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도 정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하고 말이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내정 간섭적인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먼저 답변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黃震夏 委員 이번의 연평도 사격 훈련의 의의를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로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의의를?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이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부터 계획되었고 또 죽 해 오던 훈련이고 또 지난번 연평도 도발사건 때문에 마치지 못했던 훈련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黃震夏 委員 그런데 지금 장관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는 더 다른, 그냥 예사롭던 훈련하고 좀 의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사롭던 훈련 못 마친 것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북한이 예사로운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영해에다가 포 쏜다 그래 가지고 도발했던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黃震夏 委員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재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훈련한 것처럼 했으면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고 온 국민의 긴장 속에서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전에 했었던 일상적인 훈련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게 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번째는. 해상경계선은 북한이 지 마음대로 그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NLL…… 이제까지 북한도 인정해 왔었던 NLL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는 해상경계선이다, 이것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사격 훈련은—북한이 도발이라고 그러지만—전혀 도발도 아니고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주권에 의한 그러한 사격 훈련이다, 이

건 외국도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좀 미흡한 면은 있지만 북한의 도발 이것은 절대 우리가 봐드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과시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외교부장관 동의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동의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일상적인 훈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의를 확실히 살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 있었는데 지금 NLL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 받는 식이었고, '사격 훈련하지 말라' 그러면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걱정을 했고 또 북한이 도발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응징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줬었는데 이번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커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동의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런 사격을 우리가 큰 문제없이 다 계획된 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아무리 안보리를 소집했었지만 성명서 채택도 못하고 무산돼 버렸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형오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무슨 외교적인 승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최소한도 우리나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감대라고 그럴까, 이런 걸 어느 정도 얻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이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장관님은 어떤 걸 예측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향후 태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이번 사격이 있은 후에 분쟁이 악화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의 판단이 맞지 않았다라고 아마 지금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판단이…… 한국이 왜 그렇게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국의 의견이 달라졌다 그래서 마찰이 있다거나, 저는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어떻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뭐 러시아가 이번에 그런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이 북한 규탄하는 얘기를 빼버리는 걸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우리하고의 어떤 심기상에서 불편한 관계도 노정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조해야 될 중요한 우방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 나라하고의 관계를 잘…… 뭐라 그럴까, 설득시킬 건 시키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문할 건 주문하는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통일부장관께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黃震夏 委員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개성공단에 209명 그다음에 금강산에 14명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방북 허용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숫자는 또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11월 23일 이후에 한 500명 정도 선에서 지금 인원 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로 지금 돌아갈 걸로 봅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북한이 또다시 감행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언제든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JSA에서 있을 수 있고, 애기봉에다가 어쩔 수 있고, 심지어는 확성기에다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예측들을 해 보지 않습니까, 추측들을?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黃震夏 委員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연결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중에 특히 이 개성공단은 북쪽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라든지 특히 금강산 이쪽 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어떤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 모두가 다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교환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예, 어떻든 어제 사격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재삼 확인한 것은 우리가 국민적인 결의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 또 어떤 무모한 획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필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신청, 네 분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시간 5분 드리고요. 1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위성락 본부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 그쪽에서, 아까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했다, 연평도 문제라든지 그 밖의 북한에 대한…… 이번 연평도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비난은 똑같다'고 이렇게 말했지요?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그밖의 6자회담에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대화나 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이미 신문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입장이?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예, 제가 그렇게 기자한테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북한도 최근에 6자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보도가 됐지요?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예.

○김충환 위원 그렇다면 한국·미국·일본이 6자회담에 약간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6자회담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저희가 대화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김충환 위원 6자회담 자체를……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예, 6자회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생산적인 6자회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자, 그런 입장으로 지금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어쨌든 여건 조성을 하고, 아까 미국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조건도 사실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섯 가지라고 하지만 그게 거의 하나나 다름없을 정도로 세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예.

○김충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장관께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중국 어선이 지금 한국 어업구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딪쳐서 중국 어민들 또 선장, 세 사람이 실종 또는 죽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국 경찰관들이 다치고 했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금년에만 해도 벌써 세 번씩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국 정부가 주변국을 좀 무시하지 않나, 일본의 조어도 사태 때도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고 또 최근의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고 또 북한에 대한 입장과 남한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 중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승이 큰소리치면 그 집의 하인도 큰소리친다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어선의 선원들까지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또 과격한 행동하다 자기네 배가 침몰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입장을 중국 정부에 표시해야 된다 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불법 어로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중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자기들 어선들의 상업적인 이해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조업하다 걸리면 벌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아나든지 거기서 저항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나라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핵문제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북핵문제이고 또 긴장 완화는 되는 게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긴장 완화는 저희들도……

○김충환 위원 긴장이 유지되는 게 좋은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개성공단에 사람을, 우리 국민을 700명씩 1000명씩 넣어 놓고 긴장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충환 위원 그리고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세계 7대 수출국이고 또 앞으로 한미 FTA, 한·EU FTA가 되면 내년에는 6대 수출국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즉 국제적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경제대국 한국이 세계화에 집중해야 될 시점에 집안에 있는 말하자면 말썽쟁이 가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그런 점에서 가끔 혼자 생각할 때 의문이 생깁니다.

장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나라당이 처음에 너무 세게 북한 길들이기로 나섰다가 지금은 돌이키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가기에도 어색하고 안 가자니 이것이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자니 명분이 걸리고 안 가자니 불편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로 세계의 경제대국이고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G20 의장국 출신으로서 이제는 좀 대국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포를 쏜다고 해서…… 그러면 북핵문제가 해결됩니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긴장 완화가 됩니까?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큰 흐름에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장관께도 제가 또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방법을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떤 그런 노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죽 오랫동안 얘기해 오던 그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의 우리 상황은 그런 엄중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남경필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후속 토론인데요.

우선 외교부장관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평화교섭본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교섭을 좀 주도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보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마치 한반도긴장본부 같아요. 그래서 이것 참 이름하고 안 맞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통일부장관님은 처음부터 통일부가 아니라 기다리는 부냐?' 이런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냥 논리 전에 받는 인상입니다. 아마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아니기를……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다음에 이것 일일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도 좋은데, 안보리 문제에서 서해 이야기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말씀이지요. 전 세계 방송, 신문이 헤드라인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것도 '한국 정부가 서해를 관할하기 위해서 아주 아슬아슬한 밧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경우인데, 그 정도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분쟁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책략에 우리가 말릴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조심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의 경계선은 지금까지 양측이 관할하는 수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단, 앞으로 별도 합의 시까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건 앞으로 별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남북 간의 합의는 자꾸 이념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걸 냉철하게 보면서 우리가 대해야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이야기할 때 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논리적 정당성이 된다, 제가 냉철하다는 것은 그 문제…… 앞으로 별도 합의 시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교부장관님이나 간부들이 러시아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의 특성……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장관님 잘 아시겠지요? '러시아 외교의 특성' 이렇게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난번 천안함 때도 와서 조사단 보내 가지고 '조사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 하기로 했다' 아니, 러시아가 무슨 세계 경찰도 아니고 내부 참고용으로 조사하러 왜 왔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러시아가 뭘 노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목적은 아니지만 대러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언론에서까지도 러시아가 우리를, 눈 뜨고 코 베어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국민 단합·안보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민 단합을 잘해야 됩니다. 국민 단합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단합을 해 가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지도력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80% 이상이 안보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는 이유, 그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제가 전 정부, 현 정부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어떤 위원님들이 전 정부, 현 정부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연평도 도발 원인이…… 이게 국방연구원 설문조사 아닙니까? 연평도 도발 원인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탓으로 하는 게 39.4%고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이 51.3%다. 북한을 두둔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반도에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자세에서 상황을 관리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불안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단합을 시킬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깃발 들고 '다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친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해서는 지도력이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

그리고 개성공단, 통일부장관님 탄광의 카나리아 아세요? 탄광의 카나리아 아세요? 탄광의 카나리아를 아시냐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좀 말씀하시지요.

○송민순 위원 아니, 탄광의 카나리아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남경필, 김충환 위원과 사회교대)

○송민순 위원 탄광에 산소가 모자라면 제일 민감한 게 카나리아이기 때문에 탄광의 광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광부들이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죽으면 '산소가 모자라구나' 그래서 광부들이 빠져나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가 있는 한국인 기업·근로자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탄광의 카나리아입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를 다루듯이 하고 계세요. 긴장이 좀 올라가면 빼오고 이렇게 해서 대책도 없이 그리고 기업 자체를 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두 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먼저 지도력 관계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여러 통계를 들지 않겠습니다. 송민순 위원님께서 어떤 통계를 드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조사한 많은 통계에서는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도력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정부의 강경 정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이게 참, 탄광의 카나리아 비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비유하시기 시작하시면 그야말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자체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게 어떤 구조적 문제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개성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부에서도 그것을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마치 우리가 무슨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탄광의 카나리아 취급한다 이것은 조금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송민순 위원 보충 질문 있지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외교부장관님, 아까 남북 관계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아주 당당히 말씀하셔서 원론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답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는 남북이 당사자인데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떤 상태로 보시기에 이렇게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아주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당위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문제니까 남과 북이 만나서……

○신낙균 위원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방법은 두 가지겠지요, 전쟁 아니면 대화. 그래서 대화를 자꾸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건데 당분간은 기다리는 것 외에 대화에 대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고 하여튼 그러나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군사적 차원의 무력 증강만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도 없고 안보를 지키기도 현재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상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 차원의 그러한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변 국가와의 특별히 당사…… 서로 관련이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풀기 어렵다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도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실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중국 관계는 지금 유례없이 상태가 안 좋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그래도 좋게 잘 우호적으로 되어 가는가 했다가 약간 삐끗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지금 장관님의 말씀대로 그런 상태로 계속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좋은 관계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진짜 실용 외교로 좀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련 출신 남북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네요. 란코프 교수의 칼럼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어떤 칼럼을 보셨는지……

○신낙균 위원 아직 안 보셨으면 어제인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 가능성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이분이 교수하면서 그것을 느낀 겁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분위기가 그렇게 전쟁을 해서라도 뭔가 보복적인 것을 원하는 국민의 분위기를 이분이 느낀 겁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가서 그러는데 '군사적 보복이 오히려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이 사람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군사 보복은 최상의 경우라도 북한보다는 남한이 타격이 있을 거고 최악의 경우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남북이 처한 상황이?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남한이 풍요롭고 자유 경제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해서 주목할 만큼 군사적 대응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이런 지혜를 버린다면 우리 모두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군사적 도발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우리 정부는 군사적인 대응이나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치 군사적 대응이나 도발을 한 것처럼……

○신낙균 위원 자극을 해서 도발을, 자극을 한다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신낙균 위원 그리고 대응은 제대로 했어야지요. 대응을 못했다는 부분을 비판받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난번에……

○신낙균 위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도 감성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국민이 일반 국민까지, 주민까지 피해를 보고 희생이 됐는데 보복하면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는 통쾌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길게 보고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주변국하고의 관계, 이것을 더 실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김충환 신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도에 북의 포격 그리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사격훈련에 대한 논란이 오늘 국회, 상임위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해서 국가 안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추가 도발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격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행을 했고 우리 야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더 큰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북의 맞대응이 우려되므로 훈련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북의 맞대응이 없어서 더 이상의 확전의 우려는 당분간 없습니다만 이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당면 과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정책은 근본적으로 중장기 전략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전략 목표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선진 통일 국가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데 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만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또한 남한의 승리 확실하다, 거기에 이견이 아마 북한 당국은 몰라도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300기 이상의 장사정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정권에 해당되는 권역이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 경제력은 70%지만 실질적으로 100%가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십년간 일군 경제 성과가 붕괴된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승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 전략에 입각한 우리의 대응은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평화 체제 수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죽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예를 들면 대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우리 영해 사격훈련 하는가, 또 장기적으로 무슨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남북이 서로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평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야말로 방어적인 훈련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평화 통일을 향한 그런 플랜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 점에서 당면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논의에 있어서 결국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관철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북이라는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의 태도가 어떠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북한이 다시 우리한테 도발하면 우리가 응전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따라서 이 북한의,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응이 이성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한다고 우리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북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북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면 과제 중에서도 초미의 과제인 서해안에서의 무력 충돌이 지금 일상화될 위기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지 대책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대만이 대응했던 것처럼 금문도를 요새화하고 또 국지적인 전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군이나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에 우위를 확보하는 이런 긴장 대결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10·4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처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해서 남북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 이익과 평화통일이라는 중장기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지, 선진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과제에 부합하는지 장관께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NLL은 우리 고유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고 영해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선에서…… 그러나 남북 간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모색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스탠스(stance)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노력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혜영 위원 당장 서해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서해안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NLL은 확고히 수호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and then)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의 대책까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지난 정부와 같은 그런 서해지구, 그런 방식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원혜영 위원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 설정 이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원혜영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에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리처드슨 지사가 간 것 갖고 좀 묻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계산된 행동을 하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11월 초에 미국의 전문가팀을 불러서 전격적으로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고 또 12월에는……

리처드슨 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구지요? 가까운 정치적 동지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같은 당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난번에 상무장관에도 임명됐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은 나름대로 명확한 목표 그리고 냉혹한 접근 이러한 걸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IAEA 사찰단 수용 또 연료봉 이걸 외교부의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낡은 카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쉽게 일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쪽 반응도 북이 이행을 한다면, 이행 의지가 있다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행 의지가 있다면……

○정동영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천안함 문제도 그렇고 말의 비용이 크거든요, 말. 말을 먼저 뱉어 놓으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다 포기하면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것은 별로, 이제 신용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미사용 연료봉 1만 2000개를 반출하겠다, 할 의사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가령, 이것을 특별히 누가 사갈 사람이 주변국에 별로 없는데 한국 반입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 협의한 적도 있었고요. 다만……

○정동영 위원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상황에서 그 문제 하나만 딱 떼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지난번에 협의한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까,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난번 협의는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에서 논의가 됐지만 지금은 6자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딱 떼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어쨌든 우리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핵화를 맨 앞에 내세웠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3년 지났는데 핵능력은

커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가만히 기다려야 할 상황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처드슨 갔다 온 얘기도 좀 들어 보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얘기는 들어 봐야 되겠지요.

○정동영 위원 들어 보고 우리도 좀 움직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6자회담 재개도 추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일단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가 다 때가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이 과연 적절한 때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정동영 위원 지난 3년 내내 이러다가 상황은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한국의 자주적인 해결 능력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래도 외교안보수석 했고 외교부장관을 지금 하시는데 뭔가 좀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이렇게 가고 상황 악화되면 안 되지요. 창조적 노력을 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토를 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인식도 대단히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접어두고……

자, 지금 문제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제일 신변에 위협과, 또 실제 '자다가 벌떡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전 재산과 투자가 다 이루어진 건데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난다는 거지요.

국가라는 게 뭐냐?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립된 제도. 어쨌든 전임 정부든, 전 전임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함께 해서 만든 개성공단에 많을 때는 2000명, 지금은 200명이지만 오늘도 466명이 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저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자세는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에서는 이게 개성특구이고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계속 이게 서해 상황과 연동돼 있단 말이지요. 연동돼 있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이것을 남북 간에 협의를 개시해서 '개성 평화경제특구 이런 걸로 우리 지정하자'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이것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서해 상황과 분리하는 이런 선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도화 이걸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개성공단……

○정동영 위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무슨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뭐……

○정동영 위원 어떻게 하면 안정화를 할 수 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안보 상황하고 분리해서 그야말로 운영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아이디얼(ideal)하다고 봅니다.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출입·체류, 우리 출입인원들의 그야말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합의도 남북 간에 지난 몇 년 전에도 물론 못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 아직 제도의 단계가 그것까지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동영 위원 장관급 협의를 제안할 용의는 없어요, 장관급 협의? 개성공단이 얼마나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하고 불안합니까? 국가가 국민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장관이 좀 나서서 그런 제안……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리해서 얼마든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문제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렵게 걸려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동영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 이 부분 사실 제일 걱정해야 할 분이 통일부장관 아닙니까? 물론 늘 시간을 보고 기다려 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통일부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 통일부장관께서 이 개성공단 문제만 진짜 분리해 내면 또 큰 업적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리처드슨 지사한테 북한이 핵연료봉을 반출하겠다, 팔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반출하겠다'는 말이 '팔겠다'는 말이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런 뜻으로 들리고, 생각됩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서 핵사찰도 받겠다, 그 저의가 뭘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제가 북한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박선영 위원 우리 장관님께서는 좀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키리크스(WikiLeaks) 같은 거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정말 배신감 느끼는 말씀들을 다른 곳에 가서 하신 걸 보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러시아는 냉정과 자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냉정과 자제가 아니라 냉정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것을 냉정하게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지요. 비정상 국가입니다. 비정상 국가한테는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 수가 없지요. 그거 분명하게 인식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통위 회의하면서 앞에 쭉 다 비어 있는 이런 회의하기도 처음인데 참 참담합니다. 비애를 느낍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 안보이고 지금 연평도 사건을 다루는, 긴급하게 소집된 외통위가 이렇게 야당 위원들 한 줄만 쭉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해가 서해입니까, 황해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서해라고 저희가 통상합니다.

○박선영 위원 서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영 위원 서해입니다. 그런데 이 서해가 서해 5도는 북한이 계속 집적거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은 서해는 중국한테 다 내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영 위원 2008년에 우리 해경은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얻어맞고 물에 빠져서. 이번에도 총을 겨누지는 않았지만 총보다 더한 삽과 곡괭이며 쇠꼬챙이로 찔러서 우리 해경 2명이 지금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어떤 항의의 표시를 하셨습니까? 우리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중국 측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어선 단속 해경한테만 맡겨서 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까지 쇠꼬챙이와 이런 각목과 삽자루를 휘두르는데 왜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중국에 책임을 못 묻습니까? 정말 국민들 가슴은 찢어집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지요. 그것이……

○박선영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공개적으로 저희가 뭐……

○박선영 위원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장관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불법 어선 단속을 계속해 줄 것을 요

청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세상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서 불법조업하면서 단속하면 도망가기 바쁘고 급급한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거늘 어떻게 단속하는 해양경찰청 직원들, 우리 해안경비대를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할 수 있습니까? 살인미수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중국에게 경고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기동대도 만들고 헬기하고 고속단정 이런 것도 띄우시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한다,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영 위원 이번에 한나라당이 예산을 엉망으로, 단독으로,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사할린 예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할린 잔류 한인들이고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보살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을 품고 하직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깎인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외통부에서 먼저 짜 가지고 오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영 위원 이것을 국회에서 어거지로 증액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외통부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에 잔류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오늘 지금 막 통계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240명 가까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오후에 끝나면.

○박선영 위원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렇지요? 단 두 분이 계셔도 유사시에는 그분들을 안전하게 구출을 해야 되는데 유사시에 구출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외교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 나와서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 대사라든지 하다못해 미국무부 차관보 같은 사람한테도 별별 소리,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지난 8월에 한미 양국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할 때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한 근로자가 인질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잡혔을 때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실제로 가상훈련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통일부장관도 분명히 국가안보회의의 멤버십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아우트라인은 말씀을 하셔야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에게 참정권만 주면 국민주권입니까?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키리크스가 언젠가 또 공개해 줄 날만 학수고대하면서 목 빠지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은 좀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이 자리가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지금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따로 비공개로 조금 말씀을……

○박선영 위원 그럼 개별적으로는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보충질의는 한 순배 다 돌았습니다.

송민순 위원님이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송민순 위원 예, 하나 좀, 아까……

○위원장대리 김충환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혜영 위원 한 5분 드리세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5분? 그럼 5분으로 해 주십시오.

○송민순 위원 갑자기 10초에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해 주십시오.

○송민순 위원 제가 아까 통일부장관 말씀에 추가하기 전에 조금 전에 외교부장관님 말씀이지요, 중국 어선, 난폭 선원, 폭행한 선원, 그것은 나는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이렇게 법률을 무단위반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로 엄하게 해야 됩니다. 일벌백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엄하게 해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것은 좀 확실하게, 외교부장관님, 그것은 세울 것은 똑바로 세워 주시면 좋겠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광의 카나리아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개성공단사업과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 직원들이 탄광의 카나리아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09년 여름이지요, 유성진 씨 사건, 그때 개성공단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사업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개성공단사업 자체와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 놓고 남북관계 평화의 지수, 즉 산소가 좀 모자라면 이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는 모양이고 산소가 좋아지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제가 통일부장관께 2009년 여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자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책을 좀 강구하라 지금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뭐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송민순 위원 뭐가 적절치 않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지금 우리 국민이 거기서 기업활동을 하고 또 근로자가 가서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마치 카나리아처럼 취급을 한다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제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렇게……

○송민순 위원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본질은 출입·체류에 관해 확실한 남북 간에 합의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개성공단사업을 중단을 하고 남북관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될 때 탄광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첫째는 잘 알겠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유 모 씨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저희가 거기 근로자, 국민의 체류의 안전을 위해서 북쪽하고 누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와중에 올해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안함 사태도 일어나고 지금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 중에…… 그런데 지금 북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할

건 좀 강하게 하세요. 이것은 충분히 강하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자르는 어떤 결정의 시점을 정부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정부에게 개성공단 문제를 닫아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송민순 위원 그것은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관님 말씀 중에 인식의 문제, 대통령의 국민통합 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의 단합·통합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훈련 실시한 것을 가지고 전국의 국민이 지지하는 게 많으니까 대통령이 그대로 하면 된다, 따라오면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통일부장관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단합을 지금 다른 이야기, 지금 대통령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녹여서 넣고 그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의 명분이 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 지금의 현상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단 아니겠어요? 좀 깊이 생각하셔서 대통령하고 국무회의 이런 것 할 때 한마디씩 툭툭 던져서 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이제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잘못된 판단으로 추가 도발을 시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모한 도발이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력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통일부도 우리의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홍정욱 위원·최재성 위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구상찬	김동철	김영우	김충환
김형오	김효재	남경필	문희상
박선영	박주선	송민순	신낙균
유기준	윤상현	원혜영	이상득
이윤성	이회창	전재희	정동영
정몽준	최병국	최재성	홍정욱
황진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권기원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신각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기획조정실장	전충렬
동북아시아국장	장원삼
북미국장	김형진
유럽국장	양창수
국제기구국장	백지아
국제법률국장	이기철
FTA교섭국장	김해용
북핵외교기획단장	조현동
평화외교기획단장	김홍균

통일부

장관	현인택
차관	엄종식

기 획 조 정 실 장	김	호	년
정 세 분 석 국 장	양	창	석
교 류 협 력 국 장	서		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	보	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6 이윤성·이명규·권영진·이한성·김태원·신상진·임영호·백성운·김을동·윤석용·신낙균·송훈석 의원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6 홍정욱·김충환·전재희·최병국·김효재·이상득·정몽준·이화수·서상기·김성수·김소남·구상찬 의원 발의)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6 홍정욱·김충환·전재희·최병국·김효재·이상득·정몽준·이화수·서상기·김성수·김소남·구상찬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7일 회부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2. 7 오제세·정장선·김춘진·양승조·박은수·박주선·유재중·김용구·최철국·백재현·임영호 의원 발의)

12월 8일 회부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0 안효대·임동규·박대해·손범규·박준선·이은재·장제원·김영우·김혜성·조해진 의원 발의)

12월 13일 회부됨